

넘치는 은혜의 강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올 한해는 어둡기만 합니다.
3% 채 되지 않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국의 경제위기, 유럽연합의 재정 몰락,
일본의 독도 침략의 아욕(野慾)과
중국과 일본의 전쟁도 불사할 듯한 영토분쟁, 등등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며 성경의 관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을 통해 지나가며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며
결국은 그 누구라도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
그 은혜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울창한 숲들이 세워지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듯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강물이 넘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치유와 변화,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직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과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역사입니다.

첫 사랑과 첫 헌신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강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노철 목사

※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오늘 영어 예배와
에바다부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 Ⅲ, Ⅳ층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 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Ⅲ, Ⅳ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Ⅱ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사랑부 예배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에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새가족부		직분자필수반	오전 10시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701 호		등록필수반	오후 12시40분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등록필수반	오후 3시20분	
토요꿈나무영어성품스쿨		화중 토 9:30-12:30	701 호		학습준비반	오후 12시40분	607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607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청년 3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호 / 701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 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 광 유문진 청년담담목사 오세광 전도담담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정호 교육전도사 최만혁 박다형 허승일 구본혜 협동 목사 김영한 김철홍 원종천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이사라, 권요셉·조예스터, 김모세·이하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경정(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영글라데시), 이재훈·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원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 ·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Ngiang Hi·Samuel Kei Sum(미얀마)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기다림의 시간들” (Times of Waiting)

■ 창 16:1-16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일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기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 함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하는 영적 레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다림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타협입니다.

(창 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 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래에게 믿음의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이가 75세가 되면서, 그리고 아브람의 나이가 85세가 되면서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년을 기다리다 지친 사래에게 인간적인 타협안이 다 가왔고, 그 타협안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는 방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래의 타협안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방법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들의 이성과情理에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래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고, 아브람도 그 타협안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람의 몸에서 날 자”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아브람과 사래” 의 관계를 의미한 것이지, 소위 동양에서 말하는 “첩” 혹은 “씨받이” 를 얻어서 날 아들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 65: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성장합니다.

(창 16: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라” 고 하는 영적인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침묵의 시간을 “숙성” 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랜 시간 우리로 기다리려 하십니다. 그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숙성의 시간이요, 믿음이 견고해 지는 시간이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이뤄집니다.

(창 21:1-2)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리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스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아브람의 믿음을 절대적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리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즉 인내” 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약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 주님을 향한 첫 사랑, 첫 헌신을 잊지 말고, 인간적인 타협의 유혹을 물리 치며, 인내하며 기다리시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을 이뤄주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주인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